

5m 넘는 웅장한 차체, 가속페달 밟자 매끄러운 질주

타보니 기아 'K8'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보기 편해
오디오 음량 속도 따라 자동 조절
실내 안락... 물리적 버튼 최소화



기아 K8은 K7의 후속으로 등장했다. 현대차 그랜저와 맞대결을 펼치는 대신 한 단계 윗급을 노린다. 기존 준대형 세단과 차별화를 위해 디자인과 성능, 상품성을 한 단계 높여 한 기아의 노력이 K8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12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위커피호텔 시승 행사장에서 만난 K8의 첫인상은 우람했다. 5m가 넘는 길이(전장) 덕분이다. K8은 그랜저(4990mm)는 물론이고 제네시스 G80(4950mm)보다도 더 긴 5015mm의 차체를 확보했다. 차체가 전체적으로 낮고 길어 안정감과 웅장함을 동시에 준다.

실내는 안락하면서도 고급스럽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처음 적용된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이 두 개가 부드럽게 구부러지며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담았다. 운전석을 중심으로 화면이 위치하며 운전 중에 보기에도 편하다. 인포테인먼트와 공조 버튼은 하나의 디스플레이 안에 모았다. 버튼을 누르면 두 시스템이 전환된다. 익숙해지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누르는 버튼이 거의 없어 실내가 더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을 준다.

시승한 차는 3.5기솔린 엔진을 얹은 시그니처 트림이다. 전륜구동 모델인 이 차는 최고출력 300마력, 최대토크 36.6kg·m의 힘을 낸다. 가속페달을 밟는 족족 육중한 차체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간다. 저속에선 3.5기솔린 엔진의 낮은 소음이

들리는데, 힘이 느껴질 뿐 거슬리지 않는다. 저속보다 시속 60km 이상 속도를 내고 있을 때 가속력이 더 좋다. 고속 주행 시 머뭇거리지 않고 원하는 만큼의 속도를 낸다.

속도가 붙어도 실내는 고요하다. 고속에서는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진가를 발휘한다. 영국의 고급 오디오 제조사 메리디안과 현대모비스가 함께 개발한 이 시스템은 생생함이 살아있는 수준급 음향으로 실내를 채운다. 속도를 내도 음질이 깨지거나 소음이 묻히지 않는다. 속도 변화에 따라 오디오 음량과 음질을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인텔리-큐' 기능을 갖춘 덕분이다.

광장동에서 출발해 남양주시를 고속도로와 국도로 오간 왕복 80여km 연비는 리터당 11.9km로 기록됐다.

시승 모델 가격은 4912만 원이다. 2.5기솔린 모델은 3279만 원부터 시작한다. K8은 주행 성능, 상품성 면에서 국산 차뿐 아니라 수입 준대형 세단까지도 긴장시킬 자격이 있다. 준대형 세단의 판도를 바꿀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알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이투데이 ESG포럼 2021

4월 22일 (14:00~18:00)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 3층

국내 주요 기업들은 올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년으로 삼고 빠르게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화두인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이루기 위한 경영 전략 필수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대기업만의 ESG경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각종 소재와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아야만 가능합니다.

내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변화하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커피전문점과 장례식장,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도 제한됩니다. 이에 내수대기업을 비롯해 플랫폼 기업들과 중소기업도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을 해야 하며,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중소기업이 ESG경영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동시에, 기업들이 ESG경영을 위한 준비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후원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 일시 :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3층)
- 주최 : 이투데이
- 문의 : 이투데이 사업부 02-799-2683



韓 경제정책 불안정성, 주요 20개국 중 2위

환경연 "주가·경제성장·투자 악영향...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한국경제연구원은 2016~2020년 중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산출한 결과 한국이 비교 대상 20개 국가 중 두 번째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란 미국의 베이커, 블룸, 데이비스 교수팀이 주요 20개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 수를 측정해 발표한 것이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 등이다.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지표는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다. 프랑스(22.2)와 비교하면 약 두 배 수준이다. 200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속한 결과 20개국 중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지속해서 상승한 나라는 한국과 스페인 2개국뿐이었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시간에 따라 등락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고 환경연은 밝혔다.

이렇게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설비투자증가율도 감소한다.

실제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가·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할 때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는 0.3%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연은 경제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변경되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면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는 투자 등과 같은 중요한 경제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한전KDN

상상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전KDN은 에너지 신기술로 전력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 에너지 IC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한전KDN이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 한전KDN

발전
경제적인 전력 생산과 친환경 기술
(예: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에너지)

에너지신사업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을 적용한 에너지신사업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의 생산·전송·분배 효율

송변전
전국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전력 및 열을
전력망에 연계하여 안정적 및 효율적인 보급

경영정보
고객의 특성에 맞는 전력경영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구축

배전
전기 서비스를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
고객 맞춤형 전기 공급

판매
전기 사용에 최적화된 계량, 검침, 수납
고객과의 친밀한 만남

“유흥업소 수요 서울로 쏠려 지역 간 방역 무너질 수도”

‘서울 독자방역’ 불안감 고조

서울시가 12일 예고한대로 독자적인 거리두기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한다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다.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영업 재개에 따른 ‘풍선 효과’로 수도권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보다 가팔라질 수 있고,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방역조치를 마련하면 지역 간 방역체계의 통일성이 무너져 방역조치 전반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와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가 크다.

이 중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다. 유흥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종사자·이용자의 역학조사 비협조가 빈번한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는 역학조사를 지연시켜 확진환자 접촉자에 의한 추가 전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 유흥주점 집단감염이 대표적인 사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이날 12시(정오) 기준 총 392명으로 전날보다 11명

부산 유흥주점 집단감염 재현

방역조치 국민 신뢰도 하락 우려

다른 지자체도 자체 방역 가능성

두 달 이상 집단감염 없는 업종

정부, 지자체에 완화 허용 검토

늘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가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독자적인 방역조치 완화는 유흥업소 수요를 서울로 쏠리게 하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날 브리핑에서 제안한 자가진단키트 및 신속항원검사 활용도 정확도가 떨어져 근본적인 대안은 되기 어렵다. 다만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개인이 구매해 자가검사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조치의 통일성과 방역대책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는 것도 부담이다. 2015년 중동



코로나 자가 진단키트

12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항체항원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한 관계자가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능동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며 격리자 개인정보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발 오보’도 빚발했다. 방역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독단

적인 정보 공개는 시민들의 불안감 확대,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현재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 때의 서울시와 정반대 상황이다. 정부의 방역조치를 ‘과잉대응’으로 몰아 사실상 방역조치 완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서울시의 독자적인 방역대응이 선례가 되면 같은 생활권의 인천·경기를 비롯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방역조치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메르스 때처럼 중앙정부가 방역대응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방역조치에 대한 수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출근지와 거주지가 다르다면 출근했을 때와 퇴근했을 때 방역조치도 달라져서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단계별 방역조치 속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혼선과 수용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고려해 정부도 1~2개월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업종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해 지자체 재량의 방역조치 완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노바백스 완제품 6월 출시

AZ 여유분은 고령층 접종

이르면 6월 국내에서 생산된 노바백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이 출시된다.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다. 위탁생산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달리 기술이전 방식으로 생산해 국내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단 기존 공급분의 생산 지연으로 3분기까지 공급분은 계획됐던 2000만 회분(1000만 명분)에서 1000만 명분으로 줄었다.

AZ 백신도 30세 미만이 접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여유가 생겼다. 질병관리청은 AZ 백신 여유분을 고령층에 접종하되, 혈전 등 이상반응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대치은마, 선거 끝나자마자 호가 2억 꺾음 ‘오세훈 효과’ 재건축 大魚들 들쭉

잠실 주공5, 압구정 현대2차 등 강남 재건축단지 호가 ‘천정부지’
목동·상계동, 강북도 크게 올라

서울 주택시장에 이른바 ‘오세훈 효과’가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10년간 팍 막혔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쭉이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이 간신히 안정을 찾은 주변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면적 160㎡형은 서울시장 선거전이 한창이던 5월 54억3000만 원에 팔렸다. 지난해 신고가인 43억 원(2020년 12월) 대비 11억 원 넘게 뛰는 가격이다. 현재 최고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58억 원에 달한다.

34억 원에 매수자를 기다리던 압구정3구역 현대 1·2차 전용 131㎡형 역시 오 시장 당선 뒤 36억 원으로 호가가 뛰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선 지난달 전용 76㎡형이 22억4000만 원의 신고가에 팔린 뒤 현재 최고 24억3000만 원을 호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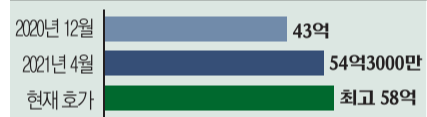
이 같은 분위기는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20억5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던 목동 신시가지 4단지 전용 115㎡형은 지난달 22억7500만 원에 최고가 거래 기록을 새로 썼다. 현재 호가는 23억 원이 넘는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상계주공6단지 전용 58㎡형은 올해 2월 처음으로 8억 원 돌파한 뒤 최근 8억1000만~8억3000만 원에 연이어 계약이 체결됐다.

재건축 단지들의 몸값이 가파르게 뛰는 건 오 시장이 선거 내내 강조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약속 때문이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강변 35층 이하 규제 해제를 내비치며 ‘50층 개발’ 기대감도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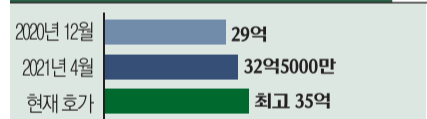
서울 재건축 주요 단지

매매 실거래가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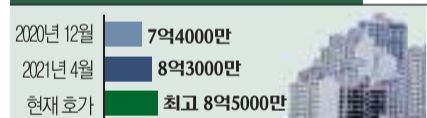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2차(전용 160㎡)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전용 110㎡)



노원구 상계동 주공6단지(전용 58㎡)



※ 출처: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및 부동산중개업소

시장에선 오 시장이 공약한 것처럼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진단을 모두 통과하고도 인허가에서 발목이 잡힌 재건축 대어(大魚)를 중심으로 후속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강남대치동 은마·미도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시범·공작아파트 등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돼 사업이 막힌 단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오세훈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통제하는 건 중앙정부다. 서울시의회도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용적률 등에 대한 조례 개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오 시장이 공약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오 시장의 공약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와 정부 간 정책적 충돌로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집값만 올려놓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WGC2022 28th WORLD GAS CONFERENCE DAEJEON, KOREA 23-27 MAY

푸른에너지로 따뜻한 행복을 만듭니다

한국가스공사

웨이브 부처 간 이견에 美 동향 살피느라 결론 못 내 C-V2X

기술표준 확정 지지부진, 왜

정부가 올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도 여전히 기술표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간 이견에 더해 미국 정권 교체로 'C-V2X 대세론'이 굳어지지 않은 영향이다.

국토부는 누적된 연구로 안정성이 높은 근거리전용무선통신(DSRC·웨이브) 방식을 지지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룬탑에 블루투스(LTE)와 5세대(5G) 이동통신 등 셀룰러 기반 V2X(Vehicle to Everything)인 C-V2X를 지지한다. 이 같은 견해차는 부처의 태생적인 존재 이유와 맞닿아 있다. 국토부는 인프라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탓에 안정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부는 ICT를 전담하는 부처로 더 고도화한 기술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기술표준 도출 시점에 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둘째 주에 국토부와 협의를 다시 시작했다"며 "6월 전에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6월 전으로 시점을 전망한 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C-ITS 인프라 구축 실시계획

국토부, 안정성 높은 웨이브 지지 과기부, 셀룰러 기반 V2X 주장 미국서 'C-V2X 대세론' 힘 빠져 "C-ITS 보고서 마감 6월께 결론"

용역을 지난달 발주해 6월께 최종 보고서를 마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는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관계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국토부가 내부적으로 웨이브 방식으로 정했다고 해도, 관계 부처 협의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술 표준 정립이 지지부진한 또 다른 배경에는 '해외 동향'이 꼽힌다.

작년 11월 미연방 통신위원회(FCC)는 웨이브를 완전히 배제하고, C-V2X 용도로 활용한 5.9GHz 대역 주파수 용도 변경을 가결했다. 그런데 미국 교통부(DOT) 등에서 반발이 이어졌고, 바이든 정부로

웨이브		C-V2X	
와이파이 기반	개요	셀룰러 이동통신 기반, LTE와 5G 기반으로 C-V2X로 통칭	
오랜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안정성	장점	커버리지, 전송 속도 등 성능 우수	
커버리지, 확장성	단점	기투자한 웨이브 방식 매몰비용 발생	
1km 미만	커버리지	수km	
0.1초 미만	지연시간	LTE-V2X는 0.1초 미만, 5G-V2X는 0.01초 미만	

정권이 교체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이라도 확정적으로 공표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의 생태계 관점에서 기술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인프라를 까는 입장에서 보면 당장 웨이브 방식을 채택하고 향후 5G-V2X 방식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시장성 관점에서 지향점을 C-V2X로 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또, 국토부에서는 5G-V2X의 상용 가능 시점이 2025년 이후라는 점을 '웨이브 지지'의 주요 근거로 들지만, 과기정통부

는 상용화와 기술표준 채택은 큰 연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5G-V2X를 차세대 기술로 검토하고 있다면 C-V2X로 표준을 정해야 부품 시장 등 생태계가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국가 주도적인 인프라 관점에서만 보고 결정하면 미래에 C-V2X 시장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완성차 시장에서도 5G-V2X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글로벌 5G 기술 기반 커넥티드카 상용화 추진 단체인 '5G

자동차협회(5G Automotive Association, 5GAA)'를 통해 5G-V2X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기본 안전 서비스는 웨이브 방식을 적용하고 더 발전된 서비스는 5G-V2X를 쓰는 방향을 그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 C-ITS를 웨이브로 간다고 해서 나중에 웨이브 방식이 무용해지는 것이 아니고, 향후 고도화한 서비스에는 5G-V2X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웨이브와 C-V2X 병행 운영에 관해서도 두 부처 간 입장에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LTE-V2X는 웨이브와 대체재 성격이 있어 배척하고, 웨이브와 보완재 성격이 있는 5G-V2X를 향후 병행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A차는 웨이브를 쓰고, B차가 5G-V2X 통신 방식을 쓰면 차량 간 통신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는 "이 문제는 웨이브, 5G-V2X 병행 운영뿐 아니라 LTE-V2X, 5G-V2X 병행 운영 시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V2X 유리한데..." 말 아낀 통신사, 국토부 눈치 보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통신과 관련한 기술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내 통신·자율주행 관련 산업계는 쉽게 속내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C-ITS 사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5.9GHz 주파수 대역을 ITS 용도로 분배하면서 해당 대역을 특정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주파수 대역 안에서 웨이브(근거리전용무선통신·DSRC)든 C-V2X(Cellular Vehicle to Everything)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현재 국토부나 민간 기업이 ITS나 자율주행 실증을 할 때에는 1차로 웨이브를

쓰고 2차적으로 C-V2X를 백업으로 쓰고 있다. 웨이브 방식은 와이파이 기반이고, C-V2X는 룬탑에블루투스(LTE)와 5세대(5G) 이동통신 등 셀룰러 기반 V2X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LTE와 5G에 기반한 C-V2X가 기술표준이 되면 C-ITS, 자율주행 시장에서 통신사의 입지가 더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LTE나 5G 등 통신 방식은 통신사가 가진 자산"이라며 "통신사 자산을 공공사업에서 활용하도록



서울시 상암 5G 자율주행 시범지구에서 5G 자율주행차 'A1(에이원)'이 5G로 신호등과 통신하며 자율주행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하면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할 유인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노골적으로 C-V2X 방식을 지지하진 않는다. 그 배경으로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ITS 사업에 통신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국토부는 안정성과 상용화 시점을 근거로 웨이브 방식을 지지한다.

통신사 관계자도 국토부의 눈치를 본다는 점을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5G나 LTE 기반 C-V2X로 자율주행 실증을 했다고 홍보하면 국토부에서는 기술표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항의가 들어온다"고 언급했다.

기술표준 정립이 미뤄지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전기장치부품(전장), 통신칩, 차량 단말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다. 이 때문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말 '자율주행의 기술표준 국제동향 및 한미 협력방안' 주제로 포럼을 열고, V2X 표준 확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C-ITS 통신 관련 입장을 아직 명확히 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관계 때문일 수 있다"고 짐작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5G자동차협회(5G Automotive Association, 5GAA)'를 통해 5G-V2X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SOUND OF THE FUTURE

더현대서울

현대백화점이 가장 진화된 미래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의도에 선보입니다



혁신적 공간 설계
대규모 실내 정원 사운즈 포레스트



글로벌 콘텐츠 큐레이션
12미터 높이의 인공폭포 워터폴 가든



미래형 테크놀로지
AWS(아마존웹서비스)기술 기반 무인 매장 연커먼트스토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

- *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도보 5분
- *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연결
-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정세균 “교류 협력 확대” 이란 부통령 “동결자금 해결”

丁총리·자한기리 이란 부통령 회담
경제협력 점검 협의체 설치 합의
“이란 핵 합의 측면 지원” 밝혔지만
美 동의해야 가능... 해결방안 강구



정세균(왼쪽) 국무총리가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예사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과 만나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총리가 이란을 찾은 것은 44년만이다. 정 총리로서 이란 방문 후 대권 도전을 위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취임 후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 방문이다.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국제 사회 제재로 약화된 한국과 이란의 협력 관계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란 방문으로 전기를 마련했다. 다만 한국은 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에, 이란은 한국 내 자산 동결 해제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어 실마리를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 사드아바드 잠후리궁에서 예사크 자한기리 이란 수석 부통령과 양국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미래 지향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회담을 했다. 회담이 끝난 뒤 양국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이번 방문 시작으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계속 이어져 양국 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한기리 부통령을 향한 초청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지금은 중단된 학술 교류, 직업 훈련 및 의료 분야 인적 확대 등도 다시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은 경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

해 경제 협력 점검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평화와 항행의 안전과 에너지 안보에 결정적인 만큼

이 해협의 항행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란의 핵합의 관련 당사국 간 건설적 대화의 진전을 측면 지원할 의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자한기리 부통령은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산에 초점을 맞췄다. 자한기리 부통령은 “국제적 적법성이 결여된 미국의 불법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서 양국(한국-이란) 관계가 침체에 빠졌다”며 “코로나19 확산 속에 이란인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금을 동결해 유감스럽다. 이로 인해 의료장비, 약품, 생활필수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자산 동결 해제) 우리가 한국 정부를 많이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이 1순위로 원하고 있는 자산 동결 해제는 인도적 교역 채널을 통해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 중 인도적인 부분을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는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 이란이 UN에 내야 하는 분담금을 원화 자금으로 내는 것도 방법으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이란, 미국 등과 각각 협의해 이란의 한국 내 동결 자산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약 70억 달러(약 7조7000억 원)로 추산된다.

테헤란(이란)=박병립 기자 riby@

與 원내대표 ‘친문’ 윤호중·박완주 2파전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 사령탑 경선에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12일 출사표를 냈다. 최대 주류 계파인 친문은 물론,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해 쇠신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비주류 후보도 탄력을 받아 지도부 새판짜기가 어떤 모양새를 취할지 주목된다.

4선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네 번째 민주당부를 만들어 내겠다”

하고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도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짚었다. 이후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 △LH 사태 등 부패 척결 △당정청 협력체계 구축 등 공약을 내놨다. 재보선 참패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짚는 당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이미 1년 반 전에 있던 일이라 개인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냈다.

반면 박 의원은 “중진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떠나는 민심의 경고에 침묵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어 △성비위 내로남불과 2차 가해 △부동산 부정부패 위선 △공정 훼손에 따른 청년층의 냉소 △당정청·당내협의의 부실화 등의 문제를 짚었다. 앞서 열린 재선 모임에 참석해선 “이대로 가면 정말 내년에 죽는다는 것에 (다들) 동의할 것”이라며 “혁신에는 성역이 없다”고 쇠신론을 폈다.

이 밖에 4선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변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을 설득하고 당원 동지를 설득할 수 있다. 저부터 시작하겠다”며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는 SK(정세균)계가 사실상 당 주류인 친문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읽힌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룰도 주목된다. 지난 전당대회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투표 10%, 일반당원 5%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경우 친문 강성 지지층이 두텁다.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호하는 등 강성 친문으로 평가받는 김종민 의원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방식을 유지한다면 다음달 전당대회에서도 친문 인사들이 다시 지도부를 꿰찰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친문이다시 주도권을 갖는다면 혁신 이미지를 가져가기 어렵다는 게 당 내외의 전반적 관측이다. 한 준비위원은 통화에서 “회의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가 상당히 진척을 봤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역대 전당대회들을 살펴보니 투표 비율이 다 달랐기에 직전 비율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김민호 기자 uknow@



윤호중 의원 박완주 의원

尹 “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朴 “혁신에는 성역이 없다”
정세균계 안규백은 불출마
투표 비율 등 ‘전대 룰’ 주목

다”며 “당을 혁신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해관계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이해찬 지도부에서 당 사무총장을 맡아 21대 총선 공천 작업을 주도했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에선 김태년 전 원내대표에게 양보하고 출마하지 않았다.

3선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도 출마 회견을 갖고 “변화와 혁신에도 골든타이밍이 있다. 혁신에는 성역이 없다”며 “이제 변화와 혁신으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가치를 복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86그룹이자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계보인 박 의원은 민평연에서 활동하고 ‘다좋은미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이상호 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윤 의원은 재보선 참패 원인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를 막지 못

KYOBO 교보증권

금융투자협회심사필 제 17-04981호(2020.11.15-2021.11.14)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76-86호(2020.11.15-2021.11.14)

스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점 직영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뱅크, 호트맥스, 영풍문고, 반디엔터테인먼트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 할인
-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카피원, 투썸플레이스 등 CJ,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 할인
SK, KT, LG, LH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칼텍스
현액오일뱅크 리터당 100원 할인
- CMA 금융서비스혜택**
IPP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선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계좌인증
- 6 신청완료 카드배송 시작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중립적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은행에 따라 채권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배머 시 0.014%의 주선배매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의 첨단 반도체가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 나갑니다

변화된 일상 속 우리의 생활이 멈추지 않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며, 끊임 없이 발전하는 첨단 기술.
 첨단 반도체는 언택트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라임 매듭짓는 하반기 '증권사 인수' 적기

금융 인사이트

DS증권 관심 가졌지만 철회 CEO 징계·낮은 자본비율 탓 '매물 뜨면 인수 긍정적 검토'

우리금융그룹의 증권사 인수설이 재점화됐다. DS투자증권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자 비(非)은행 부문을 강화하려는 우리금융이 인수를 검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금융의 증권업 진출 의지가 조명을 받은 것이다.

다만, 우리금융이 아직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계 및 보상 등의 매듭을 짓지 못해 이르면 하반기에나 증권사 인수 합병(M&A)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의 우리종금은 지난 9일 DS투자증권 인수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증권사 매물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라고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금융은 2019년 지주사로 전환한 이후 비은행 계열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증권사 인수에 관심을 보여왔다. 2년 전 인수 후보 대상에 올랐던 중소형 증권사들은 최근 증시 활황이 겹치면서 매물로 다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 시장 관계자는 "최근 장이 좋아서 증권업 역시 호황인 만큼 예전만큼 M&A 시장에 나왔다는 중소 증권사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자체적으로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보다는 새로운 증권사 인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우리금융의 증권사 인수는 비은행 확대와 시너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지만,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쟁 금융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율로 대규모 M&A가 쉽지 않고, 금융당국의 최고경영진 징계 등의 사안을 감안할 때 지금이 적기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이 작년 말 13.75%이며 보통주 비율은 9.92%다. 지난해 7월 카드법인과

외감법인을 제외한 내부등급법 변경이 부분 승인되며 BIS 비율이 소폭 올랐지만, 아직 경쟁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3분기 카드부문, 외감법인 내부등급법 추가 승인이 된다면 1~1.5%포인트(p)의 자본비율이 상승이 기대된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금융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자체 추정된 부도율(PD), 부도시손실률(LGD), 부도시익스포저(EAD) 등을 적용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위험가중자산이 줄어 BIS 비율이 상승한다.

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우리금융의 증권사 인수에 걸림돌이 될 관측도 있다. 손태수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DLF 사태로 문책 경

고 직후 징계의 효력정지 가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또,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고,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책경고로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하반기 내부등급법 추가 승인 가능성과 사모펀드 사태의 수습 경과를 본 뒤에야 우리금융이 증권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금융은 사모펀드 관련 이슈와는 별개로 증권사 인수를 진행할 것이라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매물이 나오는 증권사가 있으면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KB금융 '한국판 뉴딜' 을 3.2조 투입

2025년까지 총 76조 규모

KB금융그룹이 '한국판 뉴딜' 지원에 앞장선다. 올해 3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뉴딜 사업에 그룹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KB금융그룹은 9일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으로 구성된 '2021년 1차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KB금융은 지난해 7월부터 KB혁신금융협의회를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2025년까지 10조 원의 한국판 뉴딜 지원 및 2023년까지 66조 원의 혁신금융 지원 등 총 76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올해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각 계열사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KB금융의 한국판 뉴딜 지원 목표는 3조2000억 원이다. KB국민은행이 석문국가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에 1751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KB증권이 자원재활용 기업 지원을 위해 코엔텍 및 새한환경 인수금융에 28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3월 말 기준 총 2조2000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목표 대비 68%의 달성률을 기록한 것이다. KB금융은 이 같은 성과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시장에서 쌓아온 리더십이 '그린 뉴딜' 분야에서 이어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새만금육상태양광3구역발전사업, 화순금성산풍력발전사업, 고덕연료전지발전사업 등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3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최대 규모 사업들의 금융 주관 업무를 수주

했다. 올해도 총 50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연달아 수주하면서 국내 신재생 에너지 부문 금융 지원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KB자산운용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우수한 트랙 레코드와 자산운용 역량을 인정받아 지난 2월 정책형 뉴딜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선정됐다.

KB금융은 계열사의 적극적 투자 참여 등 그룹 차원의 지원을 통해 펀드의 조성 및 운영을 수행해 첫 번째 정책형 뉴딜펀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KB금융은 '혁신금융'을 위해 '혁신기업 여신지원 강화', '혁신성장 투자 확대' 등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는 기술금융 및 동산·IP담보대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컨설팅, KB Bridge(정책자금 플랫폼) 활성화 등으로 목표 대비 32%의 달성률을 기록 중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수은, 사랑의열매에 17.5억 후원 한국수출입은행은 12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17억5350만 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해 4월에도 사랑의열매에 4억5750만 원을 후원한 바 있다. 후원금은 다문화가정과 탈북민, 장애 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84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방문규(오른쪽) 은행장이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만나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수출입은행

은행, 사모펀드 못 팔자 방카슈랑스 집중

(은행 판매 보험)

지난해 43% 늘어 6조1947억 수수료 1년치 몰아받기 관행 여전히 '보험사의 회계변칙' 단속 목소리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채널 초회보험료 수입



지난해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판매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과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판매를 못 하자 방카슈랑스 판매로 수수료 수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올해 초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금지한 수수료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금감원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일반계정(변액보험, 퇴직연금 제외) 초회보험료 수입 가운데 은행을 통한 판매, 즉 방카슈랑스 채널의 실적은 6조1947억 원으로 1년 만에 42.6% 급증했다. 특히 삼성생명의 지난해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수입은 1년 전보다 131.9% 급증한 2조5192억 원에 달했다.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명보험 가입자 증가는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실적 개선에 큰 보탬이 됐다. 특히 방카슈랑스로 팔리는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를 가입할 때 일시에 납입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초회보험료 수입 증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과반인 생보

사가 적지 않다. 작년에 생명보험 각사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대폭 늘어난 것은 은행이 사모펀드 판매를 피하는 대신 보험 판매를 늘렸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수수료 규정에 맞지 않게 품수를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들어 중단시킨 선납수수료제도 이후 변종 수수료 체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선납수수료제도는 고객이 12개월간 내야 할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면 이에 해당하는 1년 치 수수료를 분급 없이 은행에 제공하는 형태였다. 금감원은 애초에 월납 형태로 설계된 상품인데도 한 번에 보험료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수익이 인식될 때 비용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수익

비용대응원칙의 회계 원리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영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생보사들은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제도운영을 접었다.

그러나 일부 생보사가 올해 초부터 이와 비슷한 형태를 다시 시도했다.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일사납 변액저축보험을 판매하는 은행에 모집수수료를 일시에 주는 것이다. 달라진 부분은 월납에서 일사납 상품으로 바뀐 것인데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올해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부과 기준에 일사납 저축성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해 모집하는 일사납 상품의 계약체결비용(사업비) 70%를 적립금에서 최소한 15개월간 나눠 차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일사납 저축성의 경우 수수료를 한 번에 주는 것이 문제 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사납도 이제는 월납 저축성처럼 회계상으로 계약체결비용을 분할하도록 바뀌면서 금감원이 지난해 중단이유로 들었던 회계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역시도 선납수수료제도처럼 문제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3월 카드 승인액 17%↑ 코로나 이후 최대폭 증가

"보복소비·계절적 요인 겹쳐" 온·오프라인 결제 동반 상승

지난달 카드승인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 카드승인액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소비심리가 회복하는 모습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분석한 신한카드 자료에 따르면 3월 카드승인액은 13조5072억 원으로 1년 전(11조5903억 원)보다 16.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카드승인액은 지난해 12월(-2.8%)과 올해 1월(-3.7%)에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다 2월(4.8%) 증가로 돌아선 뒤 3월 증가 폭을 키웠다. 특히 지난달 카드승인액은 코로나19 영

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2월(11조3740억 원)과 비교해도 18.8% 늘었고, 2년 전인 2019년 3월(12조220억 원)과 비교해도 12.4% 증가했다. 소비 회복세가 뚜렷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오프라인 카드승인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코로나19 시작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카드승인액은 지난해 3월(21.3%)부터 올해 3월(19.9%)까지 꾸준히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여왔다.

반면, 대면 소비가 어려워지면서 오프라인 카드승인액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있던 5월(11.3%), 6월(9.3%)의 증가를 제외하고는 감소하거나 0~1%대 증가에 머물렀다. 하지만, 2월(3.7%) 플러스로 돌아선 뒤 지난달(15.9%)에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보복 소비'와 계절적(봄) 요인 등이 겹쳐 소비가 'V자 회복'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지연 기자 sjy@

삼성, 10만원대 스마트폰으로 14억 인도 공략

현지 최대 쇼핑몰 '플립카트' 제휴 갤럭시F12·갤F02s 온라인 판매 돌입 '점유율 70%' 중국폰에 도전장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10만 원대 보급형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현지 소비자 마음 사로잡기에 돌입했다. 이는 인도시장에서 7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제조사들의 아성에 균열을 내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인도 최대 인터넷 쇼핑몰 플립카트(Flipkart)와 공식 홈페이지에서 갤럭시F12와 갤럭시F02s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갤럭시F는 삼성전자가 플립카트와 제휴해 내놓은 중저가 스마트폰 시리즈로, ODM(제조자개발생산)을 통해 만들고 현지 유통과정을 대폭 줄여 가격을 크게 낮췄다.

두 제품은 각각 갤럭시M12와 갤럭시A02s를 더 저렴하게 리브랜딩한 것으로, 모



든 사양에서 20만 원 아래 가격대를 형성한 점이 특징이다. 갤럭시F12의 경우 사양에 따라 1만999루피(16만9000원)~1만999루피(18만4000원) 선이고, 갤럭시F02s는 8999루피(13만8000원)~9999루피(15만3000원)로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

두 제품 모두 가격대를 확 내렸지만, 배터리와 카메라 기능엔 나름대로 힘을 썼다. 갤럭시F12엔 △90Hz 주사율 HD 디스플레이 △전면 8MP(메가픽셀), 후면 48MP 쿼드 카메라 △6000밀리암페어

(mAh) 배터리, 갤럭시F02s에는 △6.5인치 HD 디스플레이 △전면 5MP, 후면 1300만 화소 메인 카메라 △5000mAh 배터리를 포함했다.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갤럭시F12가 엑시노스850, 갤럭시F02s는 퀄컴 스냅드래곤450을 실었고, 15W 급속충전 기술도 두 제품에 모두 탑재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2월 인도 특화 스마트폰 라인인 '갤럭시 F' 첫 제품인 갤럭시 F62를 선보인 바 있어 두 달 만에 갤럭시 F

라인 새 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갤럭시 F62는 30만 원대 가격으로 고성능 칩셋과 카메라를 강점으로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가격대를 더욱 낮춰 소비자층을 넓히려는 시도였다.

인도는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했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포화에 이른 주요 스마트폰 시장과 비교해 '블루오션'으로 불린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인도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30% 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출시가 지연됐던 초저가 제품들이 대거 시장에 등장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위축됐던 현지 소비 심리가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가장 공격적으로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확장에 나서고 있는 샤오미 행보가 눈에 띈다. 올해 들어서만 포코 M3, 레드미 노트10 등 다양한 라인업에서 10만 원대 선택지를 내놨다. 포코 M3의 경우 유럽에선 20만 원대에 팔렸지만, 인도 출시 버전에선 사양이 일부 낮춰 가격을 내렸다. 오포와 비보의 경우 지난해 말 출시한 20만 원대 스마트폰들에 대한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대거 추가하며 삼성전자와 샤오미 보폭 맞추기에 열심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시장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샤오미가 26%로 1위, 삼성전자는 21%로 2위를 차지했다. 비보, 리얼미, 오포 등 다른 중국 제조사들은 10% 넘는 점유율로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다. 노وری 기자 we1228@

배터리戰 합의한 SK·LG “경쟁력 강화” 이구동성

임직원 격려 나선 두 수장

SK이노 “불확실성 해소 도약”

LG에너지 “지배권 인정 받아”



김준 SK이노 사장 김종현 LG에너지 사장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최고경영자(CEO)들이 배터리 분쟁 합의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히고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전날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소송 합의 이후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 우리 기술과 제품 경쟁력으로 저력을 보여 주자”며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김 사장은 “그동안 회사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해 관련된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면서도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점에서 소모적인 소송 절차에 얽매이기보다 사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를 통해 배터리 사업 성장과 미국 시장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미국 조지아 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에 맞춰 추가 투자와 협력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 우리 기술과 제품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성장을 통해 저력을 보여주고, 우리 마음의 상처 역시 보상받아야 한다”며 이번 합의로 회사와 임직원들이 더 큰 성장을 이루자고 독려했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도 사내 메시지를 보내 “이번 합의는 숏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도전·혁신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임직원의 노력·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은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난 30여 년간 투자로 쌓아온 배터리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게 된 것도 무엇보다 큰 성과”라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을 계기로 회사는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 갈 것”이라며 “나아가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대규모로 배터리 공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역량과 지적 재산에 대한 소중함·자부심을 되새겨 더욱 소중하게 보호하고 미래 기술력 확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세계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날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에 총 2조 원을 지급하는 내용에 합의해 국내외에서 2년간 벌여온 전기차 배터리 분쟁을 끝냈다.

김병리 기자 kimstar1215@

현대차, R&D 경력직 채용 스타트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본부가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우수한 경력 인재를 모집한다.

현대차는 12일부터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개발본부 전 부문에서 경력 사원 채용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가속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에서 연구개발 부문의 우수 인재를 공격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과 역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총 11개로 △차량개발 △디지털엔지니어링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전자시스템 △연료전지 △전동화/배터리 △선행개발 △기술경영 △로보틱스 △디자인 등이다.

해당 분야 관련 경력자와 박사 학위 소지(예정)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서류 접수는 28일까지다. 분야별 자격요건과 수행직무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아파트 이웃끼리 유휴차 빌려주세요”

타운카, 차량 공유 실증 특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사내 벤처 1호인 ‘타운카(Towncar)’가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12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타운카는 국내 최초의 개인 간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이자 아파트 기반 이웃 간 차량 공유 중개 서비스다.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유휴차량 공유를 통해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거주민의 이동권 확대, 대중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가 기대되고, 소규모 대여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해 볼 좋은 기회”라며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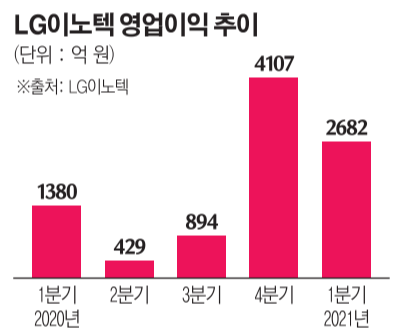
타운카 서비스를 운영하는 타운즈는 한국타이어의 사내 제안 제도 ‘프로액티브 스튜디오(Proactive Studio)’를 통해 탄생한 사내벤처 1호 스타트업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뒤 분사 창업해 별도 운



영되고 있다. 타운카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인소유 차량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다른 입주민에게 단기 대여하는 ‘이웃 간 유휴차량 중개 대여 플랫폼’이다.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게만 이용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 타운카 운영사인 타운즈(TOWNZ)는 하남시에서 실증을 시작해 실증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LG이노텍 “생큐 아이폰” 1분기 영업이익 2배 ‘경충’

아이폰12 인기에 호실적 전망 “교체 수요 슈퍼사이클 올 것” 올해 영업이익 1兆 돌파 가능성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 확대에 힘입어 LG이노텍의 1분기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LG이노텍에 따르면 오는 29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시장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 등 증권업계에서는 LG이노텍이 1분기 매출액 2조 8497억 원, 영업이익 2682억 원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1380억 원보다 94% 늘어난 규모다.

LG이노텍의 호실적은 광학솔루션 사업이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LG이노텍은 애플의 아이폰12 제품 수요 증가로 멀티플 카메라모듈과 3D 센싱모듈 등 고성능·고품질 부품의 판매가 늘었다. 또 애플이 LG이노텍의 경쟁사인 중국 오피를 공급망에서 제외하면서 LG이노텍의 애플 내 점유율이 증가했다. 여기에 애플이 9월에서 11월로 아이폰12 출시를 지연하면서 계절적인 비수기에도 성수기 수준의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애플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억 5000만 대의 아이폰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5년 최고 기록인 2억3100만 대를 뛰어넘는 것이다. 올 가을에는 차기 아이폰13 라인업 출시도 예정되면서 글로벌 아이폰 생태계 기업들이 전례 없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웨드부시 증권은 “시장에서는 애플이 올해 약 2억2000만 대의 아이폰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판매 흐름을 볼 때 2억4000만 대 이상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전 세계 3억5000만 명의 아이폰 사용자들을 교체수요 대상으로 추정하면서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 교체 주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신증권은 “LG이노텍은 애플 프리미엄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 및 평균공급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광학솔루션의 매출과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LG이노텍의 올해 영업이익으로 9976억 원을 예상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조현식, 한국엔컴퍼니 대표이사직 사임

조현식 한국엔컴퍼니 부회장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엔컴퍼니는 조 부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12일 공식했다. 앞서 조 부회장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송한 주주제안에서 자신의 대표이사직을 걸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조 부회장은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제

안하며 “이 교수를 모시며 대표이사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사임하고자 한다. 경영권 분쟁 논란의 고리도 끊어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주중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도 “주주 서신을 통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조현범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의 일사불란한 경영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라고 사임 의사를 재확인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왜 삼성화재 RC가 당신에게 좋은 RC일까요?

24시간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답을 드리고
꼭 필요한 솔루션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RC
당신에게 좋은 RC를 지금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삼성화재 RC란? 고객의 자산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종합금융 전문가(Risk Consultant)입니다



삼성화재 RC만의 24시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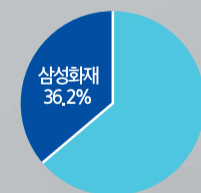
보장분석부터 가입, 관리, 보험금 청구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전자서명 계약서로 환경보호까지!



고객 서비스로 쌓은 신뢰 우수인증설계사수 1위

장기유지계약, 장기근속, 신뢰도 평가 등으로
선정되는 손해보험협회 우수인증설계사
3명 중 1명이 삼성화재 RC (점유비 36.2%)

*20년 손해보험협회 발표 기준



*20년 우수인증 설계사 중
삼성화재 비율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삼성화재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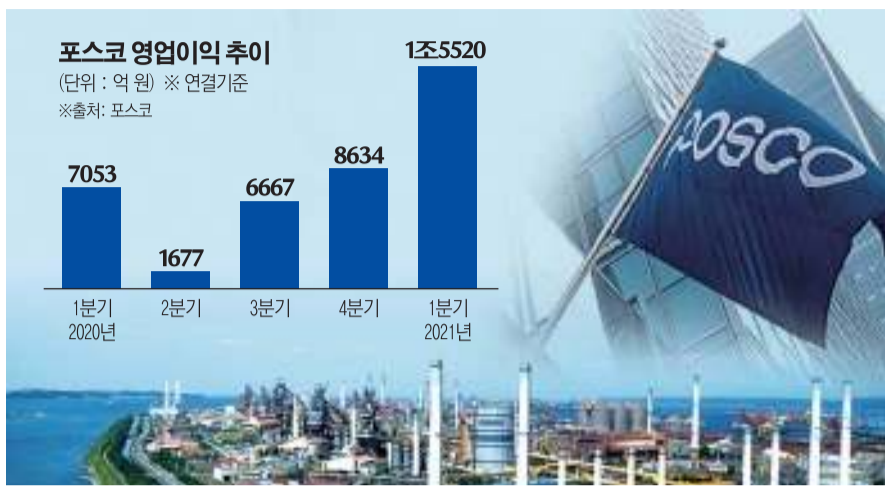
당신도 좋은 RC가 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삼성화재 홈페이지에서
삼성화재 RC에 지원해보세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1-1-6492호(브랜드전략파트, '21.03.19)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車·조선·건설 등 전방산업 회복에 2분기 전망도 '맑음'

포스코, 10년 만에 최대 실적
열연 유통가 톤당 100만원 돌파
탄소규제 여파 중국산 감소 호재
2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1조대 달성



포스코가 약 2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를 달성하며 2011년 2분기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글로벌 및 국내 철강 시장이 반등하면서 철강재 가격이 상승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2분기에도 수요 회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호실적이 기대된다.

12이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1~2월 글로벌 조강(숯물)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6.6% 늘어난 3억1500만 톤을 기록했다. 조선업계의 수주가 이어지고 자동차, 건설 등 전방산업이 회복하면서 철강 수요가 늘어난 덕분이다.

포스코는 철강재 수요가 크게 늘자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수익성을 개선했다. 포스코의 열연 제품 유통가격은 2일 톤당

102만 원까지 상승했다. 열연 유통가격이 톤당 100만 원을 돌파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열연 강판 가격은 지난해 12월 7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로 올랐으며 올해 1분기에는 90만 원대로 치솟았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 시장 회복에 따라 판매가가 오르는 등 철강업종이 전반적으로 회복했으며 철강 이외 부분의 이익도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했다.

세계 1위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생산량이 환경정책 강화로 인해 줄어든 점도 포

스코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경기부양정책 지속으로 철강 수요가 지난해 대비 15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탄소배출량 감축을 이유로 감소카드를 꺼내 들었다.

변중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실제 조강생산이 줄지 않더라도 강력한 환경규제 정책과 하위업체 퇴출, 생산량 증가 억제만으로도 포스코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2분기에도 가격 강세가 계속되면서 포

스코의 호실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급격한 생산 위축으로 인한 낮은 수준의 재고,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은 견조한 수요 증가세 등이 가격 강세를 받쳐주고 있다.

3월 주요 지역의 열연코일 톤당 가격이 중국 770달러, 유럽 850달러, 미국 1400달러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가격 강세는 세계 시장의 흐름이기도 하다.

김윤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 역시 호조가 예상된다"라며 "2분기에 톤당 3~4만 원의 원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최근 철강 가격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이를 넘어선 판매 가격 인상도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2분기 국내 강재 생산은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1860만 톤,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400만 톤 증가한 7420만 톤으로 예상된다. 세계철강협회는 올해 철강 수요를 작년 대비 4.1% 증가한 17억 9300만 톤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작년 2분기 별도기준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등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6667억 원, 4분기 863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초 중기 경영전략을 발표하며 2023년 합산 기준 매출액 철강 46조 원, 글로벌인프라 51조 원, 신성장 5조 원 등 총 102조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삼성 'iF 어워드' 71관왕

비스포크 큐브 에어 등 맞춤형 가전 호평 역대 최다 수상

삼성전자는 독일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1 (International Forum Design Award 2021)'에서 금상 2개를 비롯해 역대 최다인 총 71개의 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된 'iF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콘셉트 △인테리어 △건축 △서비스디자인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총 9개 부문에서 디자인 차별성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금상으로 선정된 '비스포크 큐브 에어(사진)'와 '비스포크 크 시티 컬러'를 포함해 제품 부문에서 36개,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11개, 콘셉트 부문에서 10개, 서비스디자인·UX·UI 부문에서 9개, 패키지 부문에서 5개의 상을 받았다.

금상을 받은 '비스포크 큐브 에어'는 전면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공기정정기로, 차별화된 무풍 청정 능력은 물론 헤링본·스트라이프 패턴 등 교체 가능한 패널을 갖춘 것이 특징

이다. 서울·베를린·스톡홀름 등 주요 도시에서 영감을 받은 색상을 제품에 적용한 '비스포크 시티 컬러' 또한 금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TV, 가전, 스마트폰 등 전 분야에 걸쳐 디자인을 인정받으며, 총 71개 상으로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금상 수상작 외에도, 제품 부문에서 △TV 베젤을 최소화해 몰입감을 극대화한 인피니티 디자인의 'QLED 8K' △트리플 레이저와 초단초점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가정용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공간에 따라 직렬·병렬·별도 설치할 수 있고 실내에도 잘 어울리는 '그랑데 AI' 세탁기·건조기 △플로터블 스마트폰 고유의 혁신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갤럭시 Z 폴드2'와 '갤럭시 Z 플립' 등이 상을 받았다.

제품 이외 부문에서도 △똑똑하고 쉬운 사용성에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점자 라벨과 사운드 디자인을 적용한 '그랑데 AI' UX △업사이클링 개념을 도입한 TV 에코 패키지 등 접근성과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이 수상을 받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강원일보 구독자 100만 돌파!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보는

江原日報 X NAVER

강원일보 창간 76년, 네이버 모바일 뉴스채널에 입점해 구독자 1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江原日報社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3
 T. 033)258-1000

대한항공·아시아나, 화물운임 하락 '울상'

화물기 공급 확대에 실적 '떡구름'

예년의 2배 이상 올랐던 항공 화물 운임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여객 수요 반등이 요원해지자 항공사들이 생존을 위해 화물기 공급을 늘려서다. 운임 상승효과를 톡톡히 봤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르면 2분기부터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홍콩에서 발표하는 TAC 항공운임 지수에 따르면 홍콩-북미 노선 기준 지난 달 평균 화물 운임은 kg당 5.48달러이다.

작년 12월 7.5달러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3월(4.03달러) 보다는 36% 상승했다.

다른 노선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지난 달 홍콩-유럽 노선 평균 화물운임은 작년 12월(5.59달러)보다 28% 떨어진

4.05달러에 머물렀다.

운임이 감소한 이유는 최근 화물기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여객 수요가 살아나지 않자 항공사들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 사업을 강화했다. 일부 항공사들은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월 여객기 A350 2대를 화물기로 바꿨다.

운임 내림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객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항공사들은 화물 영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항공 화물 운임 하락세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비상이 걸렸다.

양사는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화물 사업에 힘입어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운임 하락이 이어지면 양사 실적은 2분기부터 위축될 확률이 높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스마트폰 할인 경쟁, 소비자는 즐겁다

LG전자 스마트폰 철수한 뒤
중저가 휴대폰 '뜨거운 감자'
통신사 공시지원금 대폭 올려
'갤럭시 A42' 사실상 공짜폰

LG전자의 스마트폰 철수 뒤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내 할인 경쟁이 치열하다. 중저가 스마트폰 구매를 노려왔던 소비자들에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결정 뒤 중저가 폰을 중심으로 공시지원금이 올라가면서 실구매가가 떨어지고 있다. LG전자 스마트폰의 재고를 줄이기 위한 할인 공세가 시발점이었다.

LG유플러스는 이달 9일 LG전자의 LTE 보급형 모델인 LG Q61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12만5000원에서 32만1000원으로 올렸다. KT도 이달 1일 공시지원금을 기존 15만3000원에서 36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렸다. 출고가가 39만9600인 것을 고려하면 '0원 폰'이라는 말의 배경을 짐작할 만하다.

이통3사는 올해 초부터 LG전자의 스마트폰 철수설이 나돌자 LG스마트폰의 재고 소진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SK텔레콤(SKT)은 올해 2월 LG전자의 마지막 전략폰인 왕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1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배 올렸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실구매가가 확 내려가자 이통 업계는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도 할인에 나섰다. LG유플러스 이달 2일 갤럭시 A42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최대 18만9000원에서 40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렸다.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 A42의 출고가가 44만9000원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짜폰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A 시리즈의 공시지원금도 이달 7일 일제히 상향했다. LTE 모델인 갤럭시 △A12 △A21s △A32는 각각 최대 공시지원금이 최대 23만9000원, 25만8000원, 32만5000원으로

두 배 이상씩 상향됐다. 출고가가 각각 27만5000원, 29만7000원, 37만4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 역시 최저 실구매가는 0원이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철수에 내수에서는 삼성전자가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국 업체 샤오미가 높은 공시지원금을 내걸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LG전자의 철수가 중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SKT는 이달 9일 샤오미 레드미노트10 프로를 출고가 31만9000원, 공시지원금 최대 14만 원에 정식 출시했다. 공시지원금이 출고가의 거의 절반가량으로 비교적 높게 책정됐다.

기본형인 샤오미 레드미노트10은 지난달 30일 SKT와 LG유플러스에서 출시됐다. 출고가는 21만8900원이며 최대 공시지원금 SKT 14만 원, LG유플러스 19만1000원이다. LG유플러스의 공시지원금이 특히 높게 책정돼 실구매가는 0원에 수렴한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오진수(왼쪽) 삼화페인트 대표이사가 12일 창사 75주년을 맞아 열린 '2021 삼화페인트 비전선포식'에서 오세균 건축생산팀 수석기사에게 30년 근속상을 수여하고 있다.

창립 75주년 '삼화페인트' 비전 선편

"안심솔루션 제공 전문기업"

“상품가치 제고 큰 자산
100년 기업 새 길 모색”

삼화페인트공업이 창립 75주년을 맞아 '2021 비전 선편'을 개최했다.

삼화페인트는 지난 9일 창립 75주년 맞이 '75년을 넘어 100년으로, 내일로 가는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 비전 선편을 온라인으로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 창립기념식 주 행사는 현장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삼암동 디지털 매직스페이스에서 진행했다. 행사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1000여 명의 직원은 이를 생중계로 함께 했다.

이날 행사는 오프닝 VR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오진수 대표이사의 기념사, 창립 75주년 기념 영상, 비전 발표와 비전 퍼포먼스, 시상식, 직원들 브이로그 등으로 구성됐다.

오진수 삼화페인트 대표이사는 기

념사를 통해 제품을 보호하고 생명력을 지니고 상품가치를 높이는 삼화 프로텍션 테크놀로지는 오랫동안 쌓아온 우리만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더 고도화해 프로텍션 혁신자로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꼭 필요한 기업이 되자고 당부했다.

또한, 삼화페인트 미래를 상상하고,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노조 위원장과 공적 수상자 등 직원 대표가 참여한 비전 퍼포먼스 발표에서는 '삼화니까 안심이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에 맞게 안심 솔루션을 제공하는 안심 전문기업의 의지를 담았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창사 이래 최초 시도한 온라인 기념식은 임직원과 함께 회사 미래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회사는 임직원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75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내일로 가는 새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SK텔레콤 '점프 AR' 美 앱마켓에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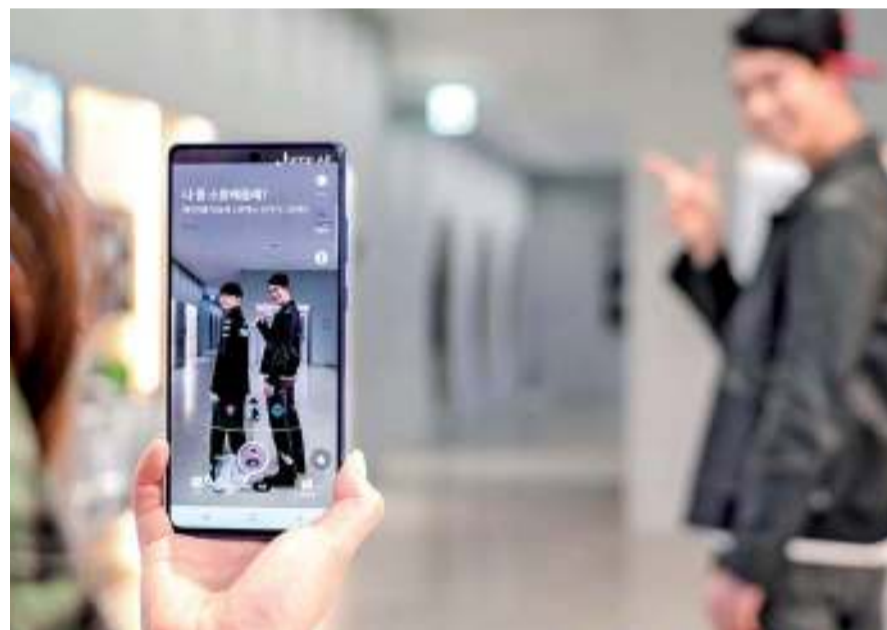
프로게이머 '페이커' 콘텐츠
국내 AR 서비스 첫 북미 론칭

SK텔레콤(SKT)이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증강현실(AR) 기반 디지털 휴먼 콘텐츠를 선보이며 증강현실 앱 '점프 AR 플랫폼'을 미국 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공식 론칭한다.

12일 SKT는 '점프 AR 플랫폼'의 미국 구글 플레이스토어 론칭에 관해 "국내 통신업계가 운영하는 AR 앱으로는 최초로 북미 시장에 진출한 사례"라고 밝혔다.

SKT는 T1 소속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의 디지털 휴먼 콘텐츠를 12일부터 점프AR 앱에서 공개한다. SKT는 지난해 11월 e스포츠 비시즌 기간에 자사 혼합현실 콘텐츠 제작사인 점프스튜디오의 볼류메트릭 비디오 캡처(Volumetric Video Capture) 기술로 페이커를 촬영해 AR 기반 '디지털 페이커'를 구현했다.

디지털 페이커는 단순한 모션 외에도 페이커가 활약 중인 롤(LoL)게임 배경과 AR 캐릭터를 합성해 게임 속 장면을 다양하게 연출하고, 팬 사인회에서 이벤트와 응원가 등 팬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팬들은 언제 어디서든 디지털 페이커를 소환해 원하는 장소에 배치하고 마치 함께 생활하는 것과 같은 친밀한 경험을 하게 될 전망이다. 또, 디지털 페이커와 함께하는 순간을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개인 SNS 계정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용자들이 SKT 점프AR 앱으로 디지털 페이커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사진제공 SKT

SKT는 디지털 페이커와 같이 아이돌, 게이머, 스포츠 스타 등이 혼합현실을 통해 팬들과 간접적으로 소통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인물은 본업에 집중하고 부가 활동은 혼합현실 기술 기반의 '디지털 휴먼'이 대체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측면에서도 오프라인 행사 등이 혼합현실 기반으로 확장돼 새 팬덤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SKT는 증강현실 앱 '점프 AR'을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공식 론칭했다. 글로벌 진출은 지난해 말 홍콩 앱마켓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AR 서비

스가 북미지역 앱마켓에 공식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SKT는 전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한 페이커의 디지털 캐릭터가 점프 AR의 미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T는 곧 '점프 버추얼 밋업' 앱을 추가 론칭하고 타 글로벌 앱마켓에도 점프 서비스 출시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전진수 SKT MR서비스CO(컴퍼니)장은 "디지털 페이커"를 시작으로 SKT의 점프 서비스를 지구촌 곳곳의 고객들과 같은 시공간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서비스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중기부, 소부장 혁신 스타트업 모집

IoT 등 5대 분야 대기업 매칭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까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해당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테스트베드와 판로개척 등에 애로가 있

는 스타트업에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연결해 지원하고, 대기업은 혁신적인 신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분업적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 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등 스타트업에 강점이 있고 신시장 창출이 필요한 5대 분야를 설정했다. 44개사의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123개의 기술수요를 스타트업과 매칭하게

된다.

선정 절차에도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먼저 1, 2차 평가를 통해 후보 기업 40개사를 선정하며, 대기업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자문단이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게 된다. 전문 자문단은 스타트업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데 겪는 어려움과 기존 제품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공한다.

최종 평가는 대기업의 구매와 기술담당자, 민간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엄정한 평가를 거쳐 '소·부·장 스타트업 100'에 선정된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檢, 정권수사 총장 인선 전 마무리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재보선 기간 관련 수사 진행 못해 인사 집행 시 수사 차질 우려... 일부 공수처로 넘길 수도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등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전까지 정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선거 기간 하지 못한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 이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남관 대검 차장도 '주요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만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까지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검찰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재보선 이틀 만인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한 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기소한 뒤 1년 3개월 만의 처분이다.

검찰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난

이 실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보상금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1월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정부의 각종 현안을 조율하는 중책을 맡아 검찰의 처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로도 현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검찰의 정권 수사 속도와 무관하

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불리는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문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로 현 정부 들어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리암·유평머스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맡으며 '방탄 검사'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검찰 인팍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직 구성과 검수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 등의 주요 현안에 대응해야 할 차기 총장은 '검찰을 해체할 검찰총장'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새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검찰 인사가 진행되면 수사팀 교체 등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해온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공수처가 인적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김 전 차관 사건 등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는 공수처로 넘겨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총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 계획한 것이 없다고 밝힌 만큼 검찰로서는 당분간 시간을 벌게 됐다. 김중용 기자 deep@



인사말하는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전두환 연희동 본채 압류 부당"

"불법 조성 재산 아냐... 별채 몰수는 정당" 원심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 내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다만 별채 몰수는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 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추징금을 미납하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 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

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불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별채는 전 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판단해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압류 처분이 취소된 연희동 본채와 정원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 부당산 처분 금지가 처분 신청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본안소송을 통해 전 씨 명의로(본채와 정원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중용 기자 deep@

"진료과정 중 추행" 최서원, 교도소장 고소

법무부 "적법한 의료 조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과장의 강제추행이 있었지만 교도소장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과장이 평소 재소자들에게 반말하고, 교도소 측이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들에게 일명 '코끼리 주사'를 맞게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최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해당 수용자의 치료 과정에는 항상 여직원들이 입회하고 있다"며 "치료 부위가 우측 대퇴부 내부로 부득이하게 하의 일부를 탈의한 후 통증 치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과장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통증 주사인 코끼리 주사를 수감자에게 처방한 적이 없다"며 "의료과장이 진료 과정에서 수용자에게 반말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통증 치료를 위한 적정한 의료 조치를 설명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한 행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 하게 했으며 해당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시니어 품격을 위한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 발매

COVER STORY 장수의 과학

PART 1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오늘과 내일
PART 2 의료의 미래, 스마트 병원
PART 3 인공지능 트레이너를 만나다
PART 4 잠 못 드는 밤, '슬립테크'가 온다
PART 5 푸드테크의 유망주, 로봇
PART 6 반려동물 건강도 AI로 똑똑하게



생활 속 법률 상식 아름다운 이별을 위하여

구해줘 부동산 뜨는 수익형 부동산

느린 여행 봄바람 타고 들려오는 유쾌한 노랫소리, 덕포진교육박물관



감성 스푼! 미술관 여기 미술관 풀밭에서 소풍과 낮잠을

습기로운 연금생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절세 가능

“온라인으로 빅데이터 활용 기술 배우세요”

영등포구 부설주차장 개방 지난해 913면 ‘서울 최다’

서울시 ‘빅데이터 클라우드 캠퍼스’ 구축

입문~전문가 과정 맞춤 교육
과목 10종→18종으로 늘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 돌입

서울 시민들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인터넷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프라인으로만 이뤄지던 ‘빅데이터 캠퍼스’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캠퍼스’를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빅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4차 산업시대의 핵심 키워드다. 공공과 민간에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는 다양한 분석·가공돼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는 찾는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캠퍼스는 다음 달 운영에 들어가며 입문자부터 전문가까지 수준별 맞춤 교육이 가능하다.

2016년 문을 연 빅데이터 캠퍼스는 서울시가 수집한 민간·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오프라인 공간이다.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캠퍼스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스마트캠퍼스 홈페이지에서 5월 말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온라인 캠퍼스 개관과 함께 올해 빅데이터 캠퍼스 교육 대상과 과목도 확대한다. 입문자와 공공기관을 위한 수준별 교육을 새롭게 시작한다. 교육과목도 10종에서 18종으로 늘렸다.

특히 올해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준비하는 관련 분야 학생과 전문가들을 위한 데이터 가공교육을 신설한다. 서울시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교육도 대학과 함께 신규 개발해 하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대학교와 협업하는 ‘빅데이터 캠퍼스 대학 분원’도 확대한다. 현재 분원은 서울시립대, AI양재허브,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4곳이다. 분원과 AI 양재 허브 분원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나머지 3곳의 분원은 해당 기관 학생,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분원 개설을 원하는 대학에는 서울시가 분석환경과 기술을 지원한다. 대학은 생활인구, 카드매출 등 312종의 데이터를 교과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수재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은 “일반



빅데이터캠퍼스 주요 데이터 목록

데이터명	데이터 설명
생활인구	서울시와 KT가 공공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융합하여 추계한 특정지역 및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
생활금융	집계구·행정동 단위로 개인·가구 들의 소득, 지출, 부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신한카드 매출데이터	가맹점 기준 내·외국인 카드매출 데이터와 거주지 기준 내·외국인 카드매출 데이터
대중교통 환승데이터	교통카드 사용 시 발생한 출발지·도착지 데이터
유동인구	LTE 신호 데이터 기반 50M 셀 단위로 요일, 성·연령, 시간 등으로 유동인구 측정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 시세 데이터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건축물대장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만든 임대시세 데이터
공간정보 데이터	건물, 주차, 시설 등 총 432종의 다양한 공간정보 데이터
소비활동 데이터	자가거주지수, 영유아지수, 학원비지수, 자가용이용지수, 홈쇼핑 데이터 등
상권발달 현황	매출지수, 인프라지수, 가맹점지수, 인구지수, 금융지수 데이터
지역별 상품 판매 데이터	판매자 주소 기준 상품판매 데이터, 구매자 주소 기준 상품구매 데이터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서울 시민 라이프 타임 (문화·나홀로 영화, 전시 관람, (관광)디지털, 미식 탐방 등

에 공개하지 않은 유용한 데이터와 분석 인프라를 갖춘 ‘빅데이터 캠퍼스’를 온·오프라인에서 확대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캠퍼스의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싶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교육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13면을 주민 주차 공간으로 개방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롯데마트 서울양평점, 대림우성아파트 등 14곳과 작년에 신규 및 연장 협약을 체결했해 주차공간을 제공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영등포구에서는 28개 건축물에 1343면의 개방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시행되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지원 사업은 기업체, 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을 대상으로 건물주가 개방 참여 신청, 주차장 5면 이상(주·야간 또는 전일 개방), 최소 2년 이상 개방하는 조건이다.

구는 개방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차단기, 바닥보수, CCTV설치 등)을 위한 보조금을 최대 2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 10만 원 충전된 교통카드 지원

서울시는 올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시작했다.

운전면허 반납자는 2018년 1236명에서 2019년 교통카드 지원 사업이 추진된 이후 1만6956명, 지난해 1만404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서울시가 7500명, 경찰청(국비) 3210명 등 총 1만710명이 지원받는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용산구·지역민 ‘이태원 상권 살리기’ 의기투합

건물주·상인·전문가 ‘추진단’ 경영 자금·컨설팅 지원

서울 용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너진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건물주·상인·전문가와 손을 잡는다.

용산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성장현구청장과 맹기훈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이상용 해밀튼호텔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태원관광특구 해밀튼호텔

옆 야외무대에서 ‘이태원 상권 살리기 결의대회’를 연다.

앞으로 구는 △이태원 상권 활성화 추진단 운영 △소상공인 재난위기 극복 지원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 △공실 활용 ‘스타샵’ 프로젝트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1부서 1경제살리기 △골목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이어간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태원 상권 활성화 추진단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건물주, 상인, 전문가,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정기(반기 1회), 비정기 회의를 열고 경영안정자금, 금융,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등 분야별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현재 추진 중인 위기 극복 사업으로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재난지원금 지급(55억 원), 중소·청년기업 용자(70억

원), 특별신용보증(156억 원)이다.

상반기 중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3억5000만 원), 소상공인 무이자 용자(200억 원)를 추가, 전체 484억50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키운다.

용산구는 상생협약 체결 건물주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용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도 한층 강화한다. 이달 말 참여 건물주 55명에게 최고 100만 원 상당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제정, 현금 지원을 추가할 예정이다. 임차인 시설개선·창업비용도 함께 지원한다. 박은평 기자 pepe@

미국 국방성 인정!



미국 밀리터리 스탠다드 테스트 (MIL-STD 810G) 통과!
밀리터리 스탠다드 테스트란? 미군납품용
하기로 고온, 저온, 침수, 강우, 진동, 충격,
갈변 등 총 15가지 극한 환경에서의
상용시제품을 통해 제품의 한계를 테스트합니다.



진짜 남자 면도기!

밀리터리 셰이퍼 SERIES 6 (KS-6100)

미국 국방성 인정 극강의 내구성! 시선 강탈 밀리터리 디자인! 건/습식 면도 완벽지원 IPX7 완전방수!
정교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터프한 셰이빙 퍼포먼스를 느껴보세요.

- 4종 커팅 블레이드**
독립 4종 면도날이 피부 굴곡을 따라 완전 밀착 셰이빙
- 액티브 캐치 트리머**
놓치는 수염이 없도록 누워있는 수염을 잡아세워 면도
- 60도 예각 에칭 블레이드**
내구성과 절삭력을 모두 갖춘 최적의 면도날 각도
- 하드 캡 커버**
단단한 하드캡 커버로 이동시에도 안전

- 향균 고무 그립**
젖은 손으로 사용시 그립감 향상과 미끄러짐 방지
- RSV(리저브) 기능**
최초 방전시 다시 전원을 켜면 약 3분간 사용가능
- 점점 방식 충전 거치대**
코드선을 끼울 필요 없이 가볍게 충전기에 올려 충전
- 전용 건조대**
습식 사용, 세척 후 간편하게 거치 보관

500명 선착순 증정!

진짜 남자를 위한
특별 사은품
이즈미 밀리터리 셰이퍼
(KS-6100) 구매고객께
이즈미 코털제거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NB-12B / 선착순 500명)
판매가 **23,900원**

*위행사는 예고 없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모델명: KS-6100 ●안전인증번호: XU101315-18004 ●원산지: 중국 ●본체 R-R-I-ZU-KS-6050 ●충전기 MSP-R-R-I-ZU-IRC-14K ●면도방식: 왕복식 4날 시스템 ●사용전원: 충전식
●정격전압: 전세계 공용 전압 AC100~240V ●정격주파수: 50~60Hz ●소비전력: 7W ●충전시간: 2시간 ●사용시간: 약 84분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Li-ion) 1500mAh ●사이즈: 61X45X156(mm) ●중량: 186g

밀리터리 셰이퍼 (KS-6100) 219,000원 ▶ **198,000원** (카드 3개월 무이자) | 온라인주문 **아랍비스토어** | 주문전화 **080-607-7700**

공유차 시대, 성공 열쇠는 '항바이러스'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트

차업계, 실내 방역기술 개발 박차

단 한 번의 접촉으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만드는 안센 백신이 국내에서 공식 허가를 받았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에 이어 세 번째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년 넘게 바이러스와 싸움을 이어가는 사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도 차 실내 위생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고온 가열안 내놓은 포드·GM

온풍기 통해 실내 온도 최대 70도 올려 15분 동안 유지 뎀 바이러스 사멸 효과

현대차의 UV 살균기술

의학적으로 세균 제거 효과 검증된 UV 무드램프·실내등 적용 기술 개발 추진

애초부터 항바이러스 소재를 사용하는 법. 마지막으로 다양한 비접촉 기능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먼저 포드와 GM 등 미국 제조사는 차 실내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방법을 내놨다.

운전자 또는 승객이 차에서 내리면 온풍기를 작동해 실내 온도를 섭씨 56도~70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 상태를 약 15분 유지하면 바이러스 대부분이 사멸한다.

포드는 오하이오 주립대와 함께 코로나19 사멸에 필요한 온도와 지속 시간 등을 연구해 대안을 도출했다. 소독이 끝나면 스스로 실내 온도를 낮춘다. 이런 기능을 위해 새 차를 구매할 필요도 없다. 이미 오래전에 출고된 모델도 소프트웨어를 통해 살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주방기기 등에 사용 중인 UV 기술도 등장= 자외선을 활용한 살균 기능도 대표적인 새 기술이다. UV(Ultraviolet Ray)로 불리는 자외선은 살균 작용이 강하다. 주방기기를 살균 소독할 때 쓰이기도 한다.

현대차그룹은 차내에 자외선(UV) 살균 램프를 활용해 위생 문제 대응에 나섰다. UV 살균은 의학적으로 세균 제거 효과가 검증된 방식으로 현재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등의 소독에 사용되고 있다.

무드 램프 같은 실내등에 UV 살균 기능을 넣어 살균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 역시 개발 중이다. 이처럼 온도를 올리거나 자외선을 활용한 기능은 운전자 또는 승객이 차에서 내린 뒤 작동한다.

◇개발 때부터 항바이러스 소재 활용= 항바이러스 소재도 대안 가운데 하나다. 운전대(스티어링 휠)와 기어노브 등 손이 닿는 부품을 애초부터 항균 소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있다.

이밖에 비접촉 스위치도 방역에 도움이 된다. 스위치나 다이얼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작동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실내등을 켤 때 직접 손으로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손을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작동하는 방식이다.

오디오와 공조장치를 작동할 때에는 명령어를

입력해 쓰는 방식도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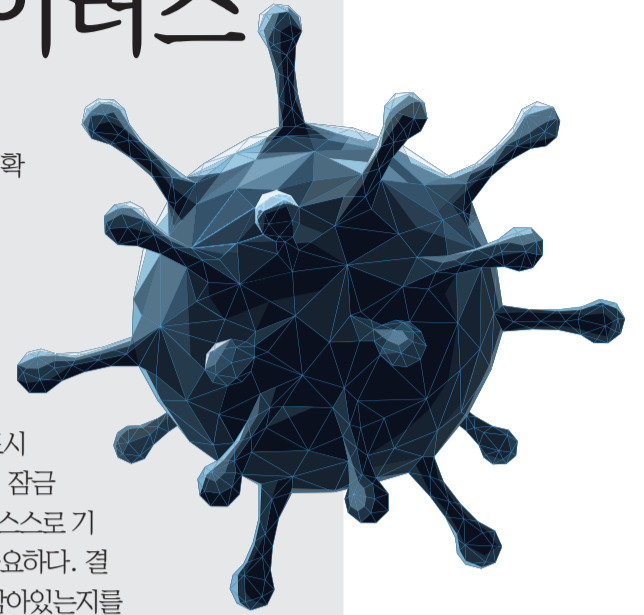
고온과 자외선 살균 등은 자칫 운전자가 승객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새로운 기능은 반드시 승객이 내리고 도어 잠금 장치가 작동된 이후 스스로 기능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차 안에 승객이 남아있는지를 고려하는 게 먼저다.

◇승객 탑승 여부 감지해 작동하는 게 관건= 제네시스는 GV70에 기존 초음파 센서보다 더 정교한 레이더 센서 기반의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람 기술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후석 승객 알람은 차량 뒷좌석에 승객이 탑승한 경우 실내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로 이를 감지한 뒤 운전자에게 단계적으로 알람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운전자가 1차 알람을 인식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리게 되면 실내 천장에 내장된 레이더 센서가 2열의 승객을 감지해 탑승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비상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게 되며 동시에 운전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특히 GV70에 적용된 레이더 센서는 뒷자리 승객의 팔과 다리 등 큰 움직임뿐만 아니라 호흡에 의한 흉부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 잠들어 있는 유아가 2열에 남아 있어도 이를 감지할 수 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승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항바이러스 기능의 작동을 애초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junior@



자외선과 고온 등을 사용하는 방식은 운전자 또는 승객이 모두 차에서 내린 이후 일정 시간 스스로 작동한다. 제네시스 GV70에 적용된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람' 기능. 뒷자리 유아의 숨소리까지 감지해 승객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사진제공 제네시스



자외선을 활용한 UV 램프. 이 역시 운전자 또는 동승객이 내리면 일정 시간 스스로 작동해 실내 세균을 제거한다.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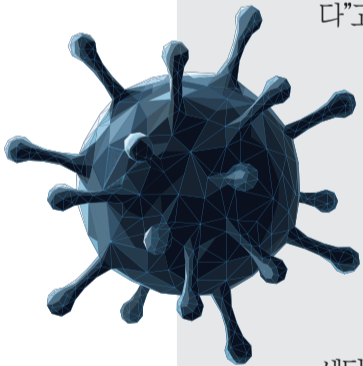
◇실내 소독은 미래차 시대 선결 과제= 자동차 실내 방역은 미래차 시대를 앞두고 풀어야 할 숙제다. 자동차 '소유'를 대신해 '공유' 개념이 확산하면 하나의 차를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카셰어링(차량 공유)의 경우 반드시 '위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정의선은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며 "우리가 그 비즈니스(카셰어링)를 하게 되면 정말 위생적으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 이후 2년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졌다.

결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중형 세단 기준으로 3㎡ 수준의 실내를 방역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내놓고 있다.

◇포드와 GM, 승객 내리면 실내 고온 가열= 자동차 실내 방역 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빛과 약제, 온도 등을 통한 살균 방식이 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항바이러스 기능 페인트 뜬다



화학업체는 완성차 내장 플라스틱과 가죽에 활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춘 페인트를 속속 개발 중이다. 상온에서 6시간이면 바이러스의 99%가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완성차 내장재 조립공정의 모습. 사진제공 기아

철판·플라스틱·가죽 등 도색 특화 6시간 안에 99% 이상 자연 사멸 "공인기관 인증 후속조치도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자동차 제조사는 물론 주요 부품사도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대대적인 연구개발에 나섰다.

특히 차 안에서 운전자와 승객과 직접 접촉하는 다양한 장치들은 항바이러스 소재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은 물론 불특정 다수가 하나의 자동차를 공유하는 공유 시대가 본격화되면 자동차 위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동차 업계가 큰 관심을 끄는 게 '항바이러스 도료', 즉 페인트다.

화학업체는 최근 잇따라 자동차용 항바이러스 페인트를 내놓고 있다. 도색 대상도 철판과 플라스틱, 가죽 등으로 특화했다. 온도 변화에도 애초 지녔던 항바이러스 기능을 잃지 않도록 특수 처리된 코팅면도 갖췄다.

항바이러스 코팅 도료는 도장 표면이 바이러스에 오염돼도 6시간 안에 99% 이상 자연 사멸한다. 차 안의 온도를 끌어 올리거나 항균 스프레이를 분사하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자동차 실내 내장재의 경우 충돌 안전을 고려해 대부분 플라스틱과 가죽으로 제작한다.

항바이러스 도료는 소재별로 도색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착색 기능을 갖췄다. 이 위에 바이러스 사멸 기능도 추가한 셈이다.

온도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실

내의 특성도 고려했다. 특히 자동차 공조 장치의 경우 계절에 따라 뜨거운 열과 차가운 바람을 내뿜는다. 항바이러스 도료는 이런 온도 변화에도 근본적인 바이러스 사멸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동차 내장재 위생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면서도 "항바이러스와 항균 기능 자체가 자칫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는 만큼, 공인기관의 인증 추진도 뒤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BEYOND
GOLF



현존 드라이버 사상 최대사이즈의 스위트팟 영역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C.O.R 0.87 이상의 고반발 드라이버 기준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스윙 2,000번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사이즈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세계 최대의 페이스/스위트팟 넓이를 통해 임팩트시 빗맞아도 최대한 똑바로 가는 타구를 제공
- 아마추어 골퍼의 약점인 슬라이스와 훅이 발생할 확률을 현저히 줄여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할 수 있다
- 총중량 223g-255g의 최경량 수준으로 가볍고 편해서 다루기가 매우 쉬우며 부담감이 없다. 스윙스피드가 빨라져 더 긴 비거리가 나간다.
- 비온드 센터 방문시 PGA프로들이 사용하는 최신의 가장 정확한 실내 분석 시스템으로 고객의 스윙을 정밀 분석 / 비거리에 초점을 둔 1:1 원포인트 레슨 제공
- 런을 극도로 많이 나오게 하는 비온드만의 I.M.T(Impact Maximum Technology)구조로 최대한 스프링을 억제하여 착지 후 다량의 런 발생으로 비거리 상승 효과
- 근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니어층에게 비거리와 방향성을 좌우하는 모든 요소를 극한까지 높인 새로운 성능의 차세대 고반발 드라이버



기존 고반발 클럽보다 더 나간다 | 비온드는 비거리로 증명합니다

비온드골프 강남점 / 분당점

비온드 센터 방문시 반드시 고객님의 클럽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온드의 "특별한 비거리"를 실감하기 위해 자신의 최대 비거리가 나오는 클럽과 비교하면서 시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결과 10명중 9명이 '비온드'쪽이 더 긴 비거리와 늘어난 런이 나온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상황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컬렉션 할수록 특별해지는 당신의 공간, 당신의 라이프

공간인테리어 가전 LG Objéct collection